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2013. 5

권오현·김영덕

■ 연구 배경 및 내용	4
■ 창조경제 개념과 정책 방향	6
■ 창조경제와 건설산업	12
■ 중소기업 경영 및 지원 실태	19
■ 중소기업 지원 방안	2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요 약

-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창의성 및 신기술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하는 혁신적 경제 구조 조성
 -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설정한 것은 중소기업이 창의성 및 융합성, 일자리 창출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임.
- ▶ 건축분야 등은 고용 증대와 부의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창조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건축 활동은 다양한 분야로부터 나온 지식과 경험의 산물이며, 에너지 절약, 물리적 기능 향상, 환경 보호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해법 모색
- ▶ 건설산업은 기술 혁신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경기 활성화 능력이 우수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적합한 산업으로 평가
 - 최근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비롯하여, 모듈공법 등 생산 방식의 혁신, IT·GT 등의 융·복합 기술의 심화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
-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소 건설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
 - 외환위기 이후 중소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4.2% 감소하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연간 퇴출되는 업체가 22.1% 이를 정도로 한계 상황에 봉착
 -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건설업체들은 배제하고 있으며, 중소 건설업을 위한 지원 예산은 전체의 0.2%에 불과
-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제도의 미래 지향적 개선이 요구됨.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산업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제도 확대
 - 중소 건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경영 컨설팅 지원,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신사업 진출 지원 등 최소한 3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필요

1. 연구 배경 및 내용

□ 연구 배경

- 정부는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우리 경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키고자,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하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기로 함.
 - 한국 경제는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과거형 성장 전략(Factor Input-Driven growth strategy)으로부터,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 전략(Innovation Driven growth strategy)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창조경제는 창의적이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기업 활동 규제를 제거하고,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하려 함.
- 건설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창조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창조 산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건설산업 분야는 삶의 질 개선 및 온실 가스 감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 분야간 기술 융·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건설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뚜렷한 경영 비전을 갖지 못하고,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음.
 - 오랜 기간 동안 건설 투자 위축과 경쟁 제한적인 보호 제도 하에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생력은 크게 약화되었음.
-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의 적극적인 기여를 위해서는 지원 정책의

획기적인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예산 중에서 국토부 예산은 전체 지원액의 0.2%에 불과

□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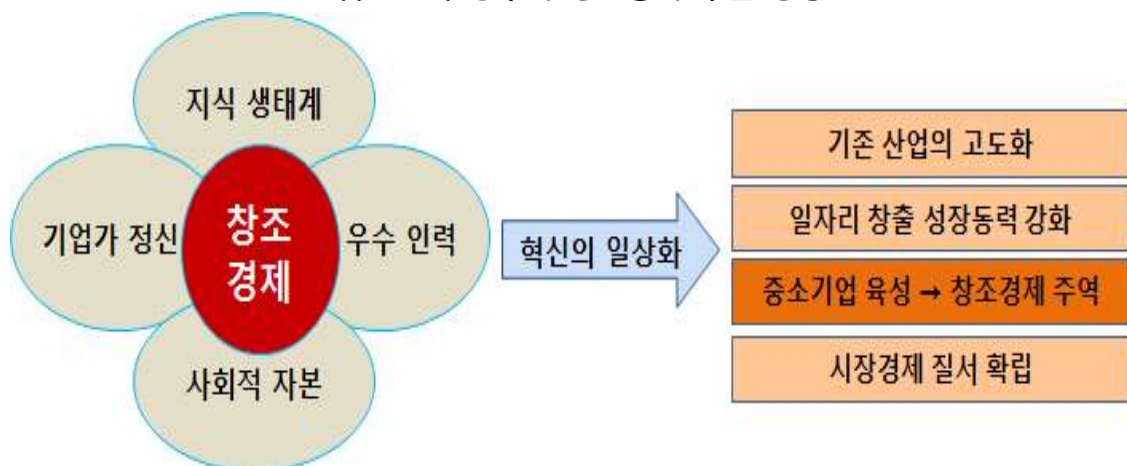
- 창조경제의 의미와 건설업과의 관계 조명
 -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및 창조경제를 모색하게 된 배경과 아울러,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산업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산업의 역할에 대해 상술
 - 지구 온난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에 대해 조망
 - 국내외 건설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혁신 방향 및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창조경제와의 연계성을 규명
 - 고용 창출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잠재적 능력을 살펴봄.
-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상의 애로 사항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실태 파악
 - 중소 건설업체들의 사업 규모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 사항을 간략히 분석
 - 중소 건설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경영 개선 지원 실태를 살펴봄.
-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향
 - 중소 건설업 지원의 사회적 당위성을 재정리하고, 중소 건설업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요 지원 사업을 제시함.

2. 창조경제 개념과 정책 방향

□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정 목표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제시
 -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 그동안의 성장 방식인 요소 투입의 확대나 원가 절감 등만으로는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 의식이 크게 작용
- 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춤.
 - 인수위가 발표한 140대 국정 과제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제시¹⁾

<그림 1> 새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방향



자료 : 최계영,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전과 과제」, 정보신정책연구원, 2013. 2 재구성.

□ 창조경제 주목 배경

-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고성장-저물가’의 역사적인 호황기를 맞았으나, 최근 미국·유럽의 금융 및 재정 위기 등으로 경기 침체 및 불안정성이 가속되고 있음.

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 과제」, 2013. 2.

-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경기 회복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집중 노력
 - 경제 위기는 기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향후 산업 재편을 가속시킬 수 있음.
- 세계 경제는 실물 중심의 산업 경제에서 정보·지식 중심 지식 경제로 전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고용 창출 방안 모색
 -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해 혁신적 시장 조성
 - 개방화된 세계 시장에서 경쟁 심화와 자국 기술 보호 정책 강화 등으로 혁신 기술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지난 50년 간 압축 성장을 달성한 한국 경제의 성장 공식(growth formula)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찾아야 함.²⁾
-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이 가장 긴요한 성장 전략이라는 견해가 있음.
 - 청년 실업 및 중산층의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및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기업에 의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부담

□ 창조경제의 개념과 구성

-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부각되는 경향 가운데 하나는 신기술의 출현과 함께 기술의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진화임.
- IT·BT·ET 등 차세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신시장과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나 국제적 기술 표준의 정립 등 기술 패권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유발

2) Choi, W. et al., Beyond Korean style-Shaping a new growth formula,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4 및 Foreign Policy, 2013. 4. 16 등.

-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제조업의 쇠퇴가 나타나면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글로벌 경제의 통합화 추세 속에서 집적 경제의 심화로 대도시 경제권이 광역화되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의 연계와 공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즉 창조경제의 기반이 조성됨.
-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등에 대해 다양한 개념과 관점이 존재함.
 - Howkins는 창조경제를 창조적 인간·산업·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로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로 정의
 - UNDP와 UNCTAD는 문화적 다양성 및 인간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산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
 - 영국 문화부(DCMS)는 개인의 창조성, 기술 등에 기초한 산업과 지적 재산 등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산업들로 광고, 건축, 패션 등 13개 산업을 제시
 - EU에서는 산업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디자인 및 건축 등의 창조 생산 활동과 시각·공연 예술 등의 문화 예술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11개 산업으로 구분
- 창조경제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책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창조산업의 범위 역시 큰 차이를 보임.
 - 창조산업의 정의에 따라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가 1%에서 49%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³⁾

3) 차두원·유지연,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p.4.

<표 1> 주요 창조산업의 구성

영국 DCMS	Hawkins	EU
광고	광고	시각 예술
건축	건축	공연 예술
미술품/골동품	미술	문화유산
공예	공예	영화 및 비디오
디자인	디자인	TV 및 라디오
패션 디자인	패션	비디오게임
영화 및 비디오	영화	음악
쌍방향 오락 SW	비디오게임	출판 및 서적
음악	음악	디자인
공연 예술	공연 예술	건축
출판	출판	광고
SW/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TV 및 라디오	TV 및 라디오	
	장난감과 게임	
	R&D	

자료 : 정병순·황정현,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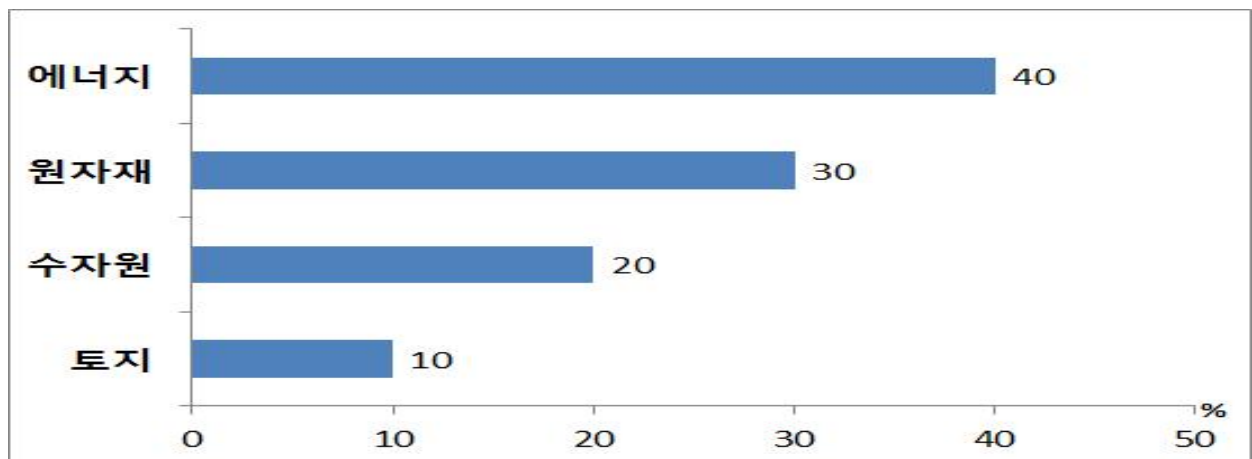
□ 건축 : 대표적 창조산업

- 일반적으로 건축분야는 고용 증대와 부의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창조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건축 산업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표적인 창조산업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음⁴⁾.
 - 건축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의 산물이며, 에너지 절약, 물리적 기능 향상, 환경 보호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해법 모색
 -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공공 서비스의 제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건축물의 디자인 등 심미적 요소는 도시 경관 및 활력에 중요하며, 건축물의 기능은 건강과 안전 등에 큰 영향을 줌.

4) Walter Santagata ed., White paper on creativity-Towards an Italian model of development, Ministry of Heritage and Cultural Activity, 2009. pp. 275-293.

-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산업·문화·도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과정에서 상상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
 - 고품질의 건축물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건축 등 건설 활동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고려할 때, 건설 활동의 합리화를 통한 잠재적인 사회 편익의 크기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⁵⁾
- 건설 시설물에서 총 에너지 사용량의 40%가 소비
 - 시멘트 등 건자재 생산에 총 에너지의 약 10%가 소비
 - 총 폐기물 발생량의 약 60%가 건설 폐기물
 - 원자재의 30%, 수자원의 20%를 소비
 - 토지의 10%가 건설 활동과 관련
- 건축 설계·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창의력이 중시되는 개인적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소규모 조직이 대부분이고, 건설업체 역시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음.⁶⁾

<그림 2> 건설산업의 자원 사용 비중



자료 : UNEP, Sustainable Building and Construction Initiative, 2006.

5) UNEP, Sustainable Buildings and Construction Initiative, 2006, p.4.

Fraunhofer and Nth Power, Innovating for Better Buildings-An Opportunity Disguised as a Meltdown, 2009, p.10.

6) Walter Santagata ed. op cit., p.282.

□ 창조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 정부가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설정한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창의성 및 융합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임.
 -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고, 중산층 붕괴, 청년 실업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인식
- 중소기업은 생산 및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력 있는 다수(the vital majority)’로 평가받아 왔음.⁷⁾
 - 미국 경제개발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기회의 자유(the freedom of opportunity)’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산업과 과학의 발전을 가속시켰고, 국민의 절반 이상의 생계를 책임지는 ‘활력의 근거’로 규정
- 중소기업은 현재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민첩성과 유연성이 더욱 요구되는 미래 정보화 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⁸⁾
 - 중소기업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고객 니즈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기업의 대응 속도와 유연성이 강조되는 반면, 규모의 경제 효과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중소기업은 단순 가공·조립이 아닌 창조적·전문적 기술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임.
- 한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 기조로서 ‘창조경제’ 외에 ‘경제 민주화’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는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도 양립될 수 있는 개념인 것으로 해석됨.
 - 시장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거대 기업의 독과점화 현상 및 이에 따른 국민 복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데,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7)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he Vital Majority, 1973.

8) Institute for the Future for the Intuit, “Intuit Future of Small Business Report”, 2008. 2.

3. 창조경제와 건설산업

□ 미래 발전의 중추

- 최근 우리의 사회는 지구 온난화, 고령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임.
- 각종 미래 전망 등에 의하면, 예상되는 핵심 과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산업 분야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부각됨.
 - 미국의 공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14대 과제(the Grand Challenges for Engineering)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① 도시 인프라의 개선, ② 맑은 물의 공급, ③ 탄소 저장 시설의 개발 등 3개 과제가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⁹⁾
 - 영국의 과학부(Government Office of Science)는 미래 사회의 1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① 인공 환경(Built Environment)의 지속 가능한 관리, ② 지능형 인프라 건설, ③ 홍수 등 재해 방지 등 3가지 주제가 건설산업 관련 이슈임.¹⁰⁾
 - 건설산업은 주로 지속 가능 발전 및 재해 예방 등의 핵심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3> 미래 사회 10대 과제(영국 과학부)



자료 : Flynn, D., Mental Capital and Wellbeing Project, UK. GOS, 2008.

9) 그 밖의 과제는 태양 에너지의 경제적 활용, 핵융합 에너지 개발, 핵 테러 방지, 사이버 보안, 가상 현실 활용 등이 있음.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홈페이지 참조.

10) 나머지 과제는 정신적 안정, 전염병 예방, 비만 해결, 뇌 과학 및 약물 중독 방지, 사이버 범죄 예방 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산업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영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
 -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¹¹⁾
 - 건설 분야는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인프라 제공
 - 폐기물 및 오염 물질 처리 및 환경 복원 등을 통해 환경 자원 보호
 - 건설 생산 방식의 개선을 통한 산업 생산성의 제고 및 근로자 노령화 등에 대비 등
- 건설산업은 기획, 조사, 설계, 시공, 운영 관리 등에 걸쳐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종합 산업으로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각 영역의 기술 진보의 융합·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으로 기대됨.
 - IT 분야 등에서 기술 발전은 분절적 생산구조로 인한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건설산업의 효율성은 OECD 15개국 중 11위에 머물러 있고, 매년 수조원의 비용이 비효율적인 작업이나 공정으로 낭비되는 상황¹²⁾
- 건설산업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잠재적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

□ 최근의 기술 혁신 동향

-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여러 생산 주체들이 참여하는 세계 건설시장에서는 기술적 진보가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에 있음.
- 최근 IT분야의 기술 발전을 이용한 BIM¹³⁾,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에너지 이용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을 비롯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듈공법 등 생산 방식의 변화 등 과거에 비해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음.

11)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10년 7.7로서 미국(3.5), 영국(6.1), 캐나다(3.4)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음.

12) 건설교통부,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보고서」, 2006. p.191.

13)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로 초기의 개념 설계에서 유지관리 단계에까지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보 이용 기술을 말함.

-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공장 생산에 의한 모듈공법의 확산, 생명공학 등을 응용한 생태 건축, 거꾸집을 사용하지 않는 Contour crafting 공법, 첨단 센서 등으로 보안 및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형 스마트홈 등 다양한 진화가 이루어짐.
 - 종업원 17명(2010년)의 미국의 건축 전문 벤처 업체 ProjectFrog는 온실 가스 85% 저감, 공사비 25% 절감을 실현하여, 영국의 Guardian지가 선정한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세계 100대 기업(Cleantech 100)에 들기도 함.¹⁴⁾
 - 중국의 Broad Sustainable Building(遠大集團)사는 2011년 허난성 창사시에 지진 규모 9에도 견딜 수 있는 30층짜리 호텔을 15일에 건설하여 주목을 받음.¹⁵⁾
 -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종전 공법으로는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교량 건설을 첨단 공법(ABC : Accelerated Bridge Construction)으로 3일 만에 완료¹⁶⁾
 - 창업 7년 만에 건설 분야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강소 기업 마이다스아이티¹⁷⁾
-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기술 혁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건설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노베이션은 정보 통신 및 에너지 등 타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융·복합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함.

14) The Guardian, 2011. 10. 18.

15) Time, 2012. 1. 12.

16) NewYork Times, 2012. 4. 17.

17) 류량도, 우리가 꿈꾸는 회사, 샘파커스, 2012 및 한국일보, 2013. 4. 9.

<표 2> 건설산업 분야 주요 이노베이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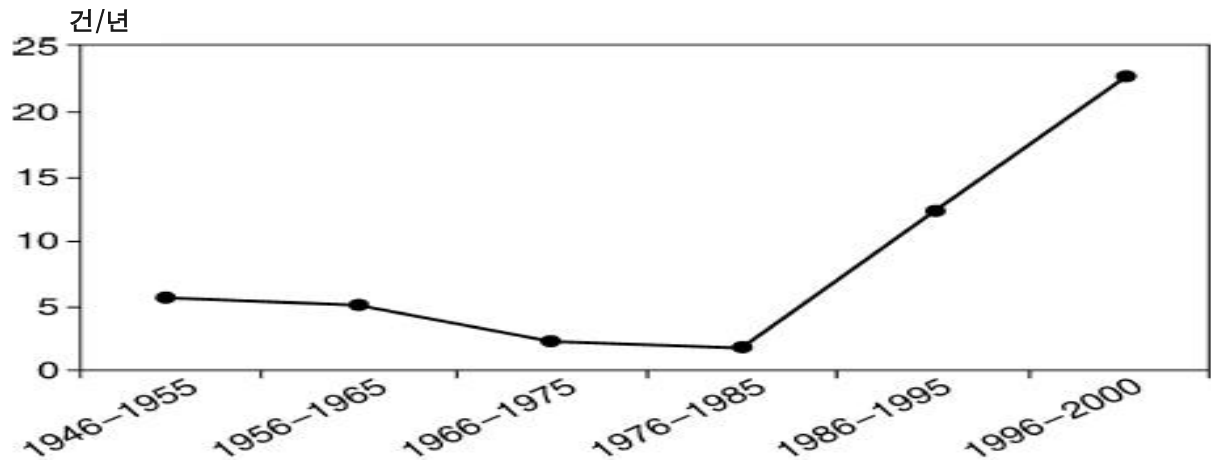
분야	촉진 요인	시장 특성	추가 혁신 사항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 건설기업 이미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주도 시장 - 스마트 신도시 등 메가 프로젝트 - 사업 경험 빠르게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한 경제성 개선 - 신기술·신소재 개발
기존 건물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인구 구조 변화 - 에너지 절약 잠재력 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한 투자 규모 - 중소기업 비교 우위 - 틈새시장 전략 - 지역시장 특성 - 베타열 기업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형태의 금융 조달 - 적정 공법 개발 필요 - 이주하지 않고 시공 필요 - 거주자 및 근로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
스마트 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분야의 기술 진보 (건설 기술과는 다소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중심으로 전기 전자 분야에 대규모 투자 - 생활 지원 기술과 그린 스마트 기술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적용 가능성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
설계 및 의사결정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사용자의 설계 및 시설 수준 결정에 참여 요구 - 향후 가변성 등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 선진국 주도 - 국내 IT 경쟁력 비교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주체들의 상생 협력 - 오픈 이노베이션 - 데이터 보안 문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술 획기적 발전 - 공장 생산 공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주도 시장 - 타 산업에서 응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창출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은 차별화 - 수익성의 확보
공장생산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생산에 비해 고품질 - 공기 단축 및 공기 준수 - BIM 생산 방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 및 일본 주도 - 표준화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표준화 - 모듈간 연계성 - 플러그 인 사용 - 냉난방 시스템

자료 : Schartinger, D., Sectoral Innovation Foresight Construction Sector, EU INNOVA, 2010. 12.

□ 중소기업의 활발한 기술 혁신

-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은 획기적인 발명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간 점진적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며, 경기 침체기에 기술 혁신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남.
- 경기 침체기에 수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소비자 만족을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기술 혁신이 종전에 비해 증가
- 1945~2000년 기간에 유럽에서 발생한 기술 혁신 동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중반에 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술 혁신은 약 10배 이상 증가

<그림 4> 연평균 건설 기술 혁신 발생 장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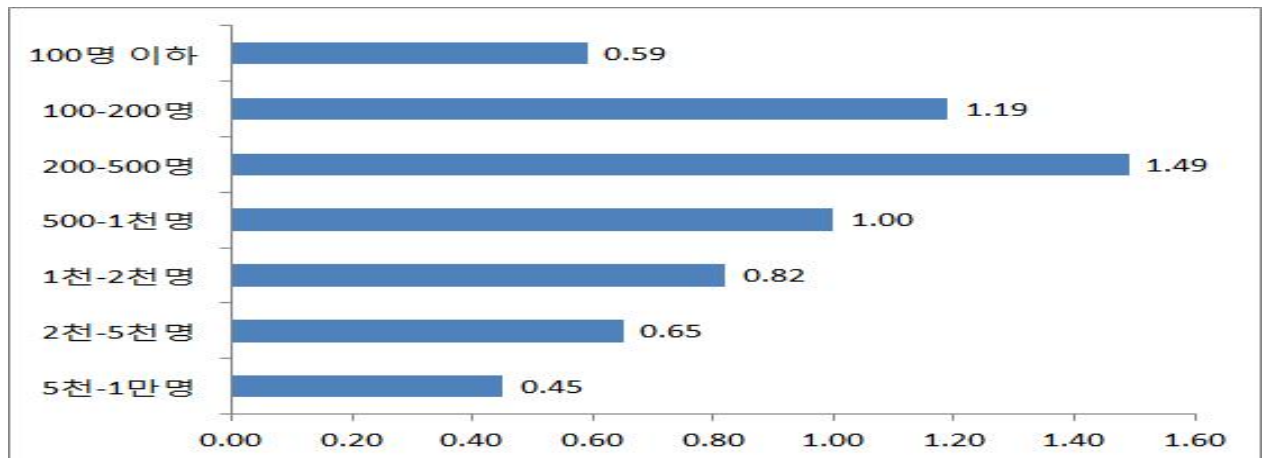
자료 : Pries, F. and Dorée A., A century of innovation in the Dutch construction industry, CME, 2005. 6.

- 과거에는 기업 단위로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비중이 80~90%로 압도적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공동 개발하는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중소기업들은 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짐.
- 중소 건설업체들에 의한 기술 혁신 활동이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¹⁸⁾
 - 기업규모별 기술혁신 강도(Innovative intensity)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500명인 중간 규모의 기업에서 혁신 활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¹⁹⁾
 - 전체 기술 혁신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이름.
 - 정규 R&D 조직을 중심으로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생산 조직에서 기술 개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업체 수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비중이 90% 이상 매우 높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음.
 - 중소 건설업체는 주로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대기업은 상품 혁신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함.

18) Pries, F. and Dorée A., A century of innovation in the Dutch construction industry, CME, 2005. 6, p.563.

19) 기술혁신 강도는 기술혁신 관련 활동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요소의 종합평가 결과로 측정. Symeonidis, G., Innovation, firm size and market structure, OECD, 1996.

<그림 5> 기업 규모와 혁신 강도



자료 : Symeonidis, G., Innovation, firm size and market structure, OECD, 1996.

-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작은 중소 건설업체들은 생존과 기업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결과 새로운 기술 개발 등 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²⁰⁾
 - 상대적으로 치열한 시장 경쟁에 적응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있어 부단한 생산성 향상 노력과 혁신 활동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있음.
 - 혁신 활동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효과

- 창조경제의 중요한 정책 목표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임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의 양호한 경기 진작 효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자재, 장비, 부동산 등 직접 관련된 산업이 다양하며, 건설 시설물은 생산·유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타 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13.7명/10억원으로 제조업 평균(9.3명)과 비교해 47.3%나 높고,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해서도 6.2% 높음.

20) Geroski, P., Innova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 OECD, 1995 및 Jong, J., Measuring innovative intensity, EIM, 2000.

-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04로 28개 업종 중에서 8위를 기록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49로서 28개 업종 중에서 중상위권인 12위를 기록

<표 3> 산업연관효과(2010년)

구 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계수(명/10억)
농림어업	1.860	0.821	37.3
광업	1.684	0.822	7.8
제조업	2.071	0.590	9.3
건설업	2.104	0.749	13.7
서비스업	1.733	0.826	16.6
산업 평균	1.948	0.686	12.9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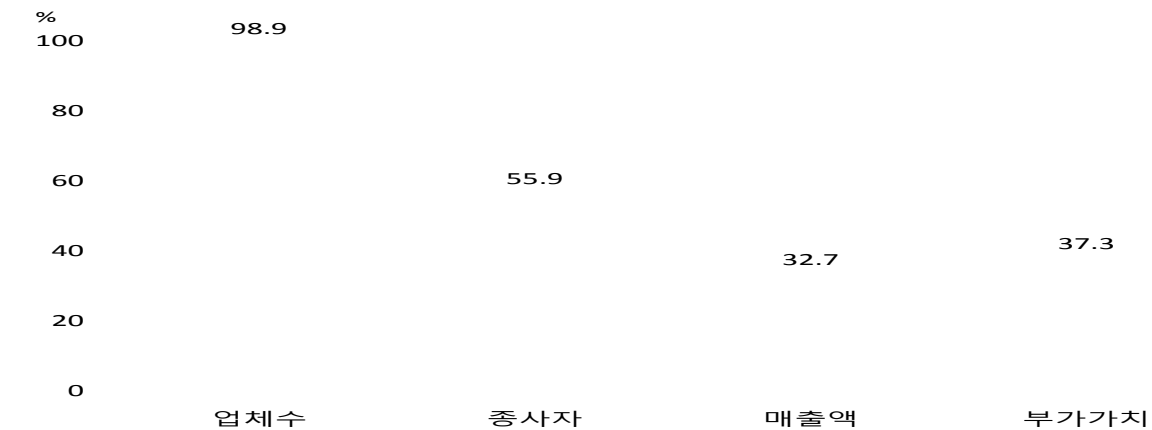
- 고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중소 건설업체는 침체기에 고용 비중이 늘어나는 고용 창출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은 23.1만 명의 고용을 축소시켰으나, 중소 건설업은 이와는 반대로 12.5만 명의 고용을 확대
-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방출되는 임직원들을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거나, 이들이 업체를 신설하여 독립하는 경향이 나타남.

4. 중소 건설업 경영 및 지원 실태

1) 중소 건설업 위상

-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 건설업체의 98.9%가 중소기업
 - 건설업의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산업에서 광업 다음으로 2위를 차지
-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55.9%가 중소 건설업체에서 일함.
 - 중소 건설업체의 고용 비중은 1997년 36.4%에서 2010년 55.9%으로 약 20%p나 증가
 - 종업원이 50명 미만의 소기업은 8,679개 업체로서 전체 건설업체의 95.6%
- 건설업 전체 매출액에서 중소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7%이고,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이보다 다소 높은 37.3%

<그림 6> 중소 건설업체의 상대적 위상(2010년)



자료 : 통계청, 건설업 통계조사.

2) 사업 수행 실태

□ 사업 규모

- 2010년 중소 건설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31억원으로 1997년과 비교해 42.4% 감소 (연평균 -4.2%)
 - 1997~2010년 기간에 중소 건설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42.4% 감소한 데 비해,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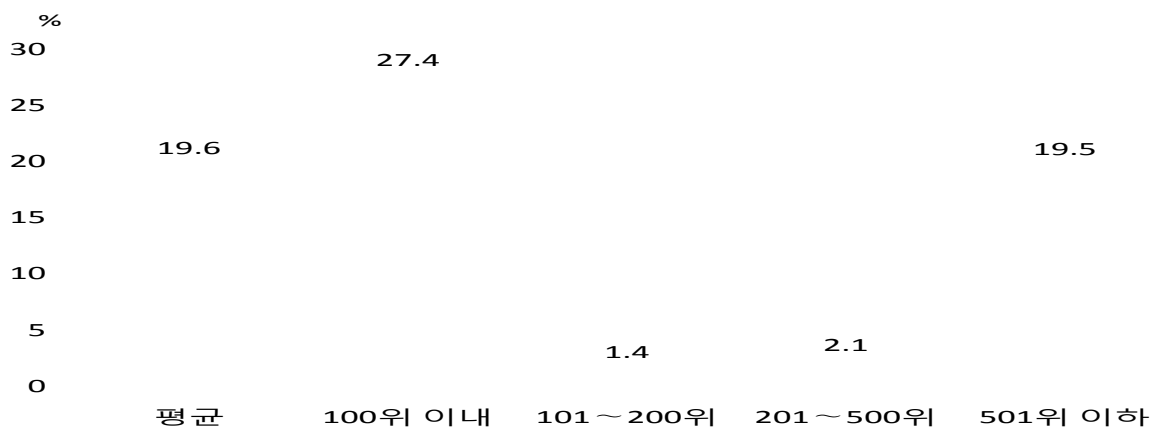
의 평균 매출액은 1997년 1,670억원에서 2010년에는 5,568억원으로 3.3배 증가

- 중소 건설업체의 매출 증가율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중소 건설업체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6.3%로서 12개 업종 중에서 하위에서 3번째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7~2010년 기간 중 전 산업 중소기업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0.3%이고, 제조업의 경우 11.6%

□ 중기업의 위축

- 종업원 수가 50~300인 규모의 중기업의 매출액이 2010년에 들어서 크게 감소
- 중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2008년 이후 계속 저하되고, 2010년에는 -8.4%를 기록
- 2005~2010년 기간 중 시공 능력 101~200위 업체들의 기성액 평균 증가율은 1.4% 이고, 201~500위는 2.1% 증가하는 데 그쳐 대기업의 27.4%와 큰 차이를 보임.

<그림 7> 건설업체 순위별 기성 실적 평균 증가율 비교(2005~2010년)



자료 : 권오현 외 3인, 「중소 건설업체 경영 실태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p.48.

□ 노동 생산성의 저하

- 노동 생산성의 지표로 이용되는 1인당 매출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38.2% 수준
- 중소 건설업체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2010년에 1억 2,270만원으로, 대기업의 3억 2,100만원과 비교해 38.2%에 불과한 수준

- 1990년대 후반까지 중소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대기업과 비교해 약 60% 수준이었으나,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
 - 1997년 이후 대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2.5배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은 1.7배 증가
 -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대기업은 7.3%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4.0%로 큰 차이

□ 과도한 퇴출

- 2011년 한 해 동안 건설업을 떠나는 업체가 2,500개를 넘어 전체의 22.1%를 차지
 - 2011년 영업 정지된 건설업체는 1,600개 업체, 자진 폐업 및 등록 말소 등은 947개 업체
 - 영업 정지의 경우,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사업 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1년 동안 전체 업체의 20% 이상이 퇴출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 퇴출 압력은 시장 적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업체들에 집중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자 수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량 중소 업체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음.

3) 중소 건설업체 경영 지원 실태

□ 건설업을 배제하는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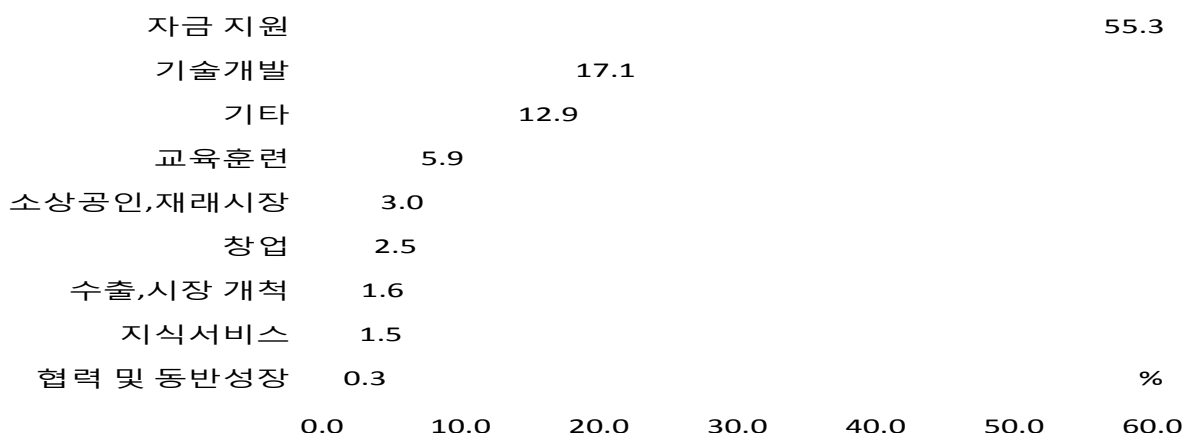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의 2013년 지원 사업 100여 개 중에서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4개²¹⁾에 불과한 실정
 -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가 다수
 -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각종 자금 지원 프로그램 즉, 개발기술사업·신성장기반·경영안정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건설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²²⁾

21) 중소 건설업체가 지원 가능한 사업들은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가업 승계 지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소상공인 공제제도 등임.

22) 제조업의 경우,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및 도박게임장비 제조업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 건설업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프로그램들도 건설업체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중소 건설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업체는 1~2%에 불과하며, 전무한 것도 있음.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건설업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건설 관련 제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도 건설 분야 지원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건설업체들이 받는 정부 지원 규모는 더욱 작음.
 -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

<그림 8> 중소기업 관련 기능별 지원 예산 배분(2011년)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 육성 시책」, 2011. 9.

- 주요 국가의 경우, 중소 건설업 경영 개선을 위해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나 영국 등의 경우, 경영 컨설팅, 교육·훈련, 시장 정보 제공 등 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 실시
 - 건설업체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을 구성해 운영

<표 4> 일본의 중소 건설업체 지원 프로그램 예시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경영 정보	건설업 종합 상담 창구	신분야 진출 등 경영 혁신 전반에 관한 상담 서비스
	건설 경영 어드바이스 파견 사업	건설업자의 다양한 경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어드바이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업체에 파견
	건설업 순회·파견 상담	건설업체의 경영 개선 및 신분야 진출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진단사 등의 순회·파견 상담
	건설업 고용관리 체크 시스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 상황에 대한 자가 진단 시스템
신기술 · 연구 개발	신기술 정보 제공 시스템	건설업체가 개발한 적절한 신기술·신공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공공사업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공법 개발을 지원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등 도입 촉진 사업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의 보급을 촉진
고용· 인재 육성	건설 교육훈련 조성금	중소 건설업체가 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경비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
	건설 사업주 고용 개선 추진 조성금	중소 건설업체가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서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고용 개선을 시행할 경우, 경비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
	건설 사업주 단체 고용 개선 추진 조성금	건설업 사업주 단체 소속 기업이 고용관리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정량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단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경우, 경비를 지원
경영 기반 강화	건설업 안정화 채무 보증(기업간 제휴 추진을 위한 채무 보증)	합병·협업화 등의 기업간 제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운전 자금 또는 설비 자금을 사업협동조합 등이 구성원에게 융자할 경우에 채무 보증
	지역 건설업 경영강화 융자제도	공공공사의 미완성 부분을 포함한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로 사업협동조합 등에서 융자 및 건설업진흥기금의 채무 보증
	하도급 대금 지원 사업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대해 갖는 공사 대금 청구권을 채권으로 하여, 지불기일 이전에 팩토링 사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경우 우대
	공동 수주 그룹 지원·육성	각 그룹의 자주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교류 자원
신사업 및 신분야 진출	건설업 신분야 진출 지원 사업	농업·복지 등 타 산업 분야로 신규 진출하거나, 신상품, 신공법의 개발 판매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건설 폐기물 재생처리 설비 설치 지원	건설 오토, 폐목재, 혼합 폐기물의 재생 설비의 취득에 관한 세액 공제
	건설업 신분야 진출 Start-up 세미나	건설업체가 신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관리기법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세미나를 개최

자료 : 關東地方 建設産業 再生協議會, 「關東地域における 建設産業支援 プログラム」, 2009.

□ 인색한 지원 예산

- 각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2011년 9.7조원 가운데 중기청 예산을 제외한 3.8조원 중에서 국토부 예산은 90억원으로 0.2%를 차지
 - 국토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주로 해외건설 지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음.
 - 국민 경제에서 건설업의 생산 비중 5.3%, 고용 비중 7.2%을 감안하면 건설업체 지원은 매우 인색한 수준

<표 5>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예산(2011년)

(단위 : 10억원, %)

정부 부처	중소기업 관련 예산	중기청 예산 제외 비중	사업 수
중기청	5,976		88
지경부	1,812	48.1	45
농식품부	841	22.3	10
고용부	708	18.8	18
환경부	131	3.5	9
문화부	221	5.9	16
특허청	32	0.8	5
금융위	10	0.3	1
국토부	9	0.2	3
방사청	3	0.1	2
관세청	1	0.0	2
교과부	1	0.0	1
식약청	2	0.1	1
합계	9,747	100.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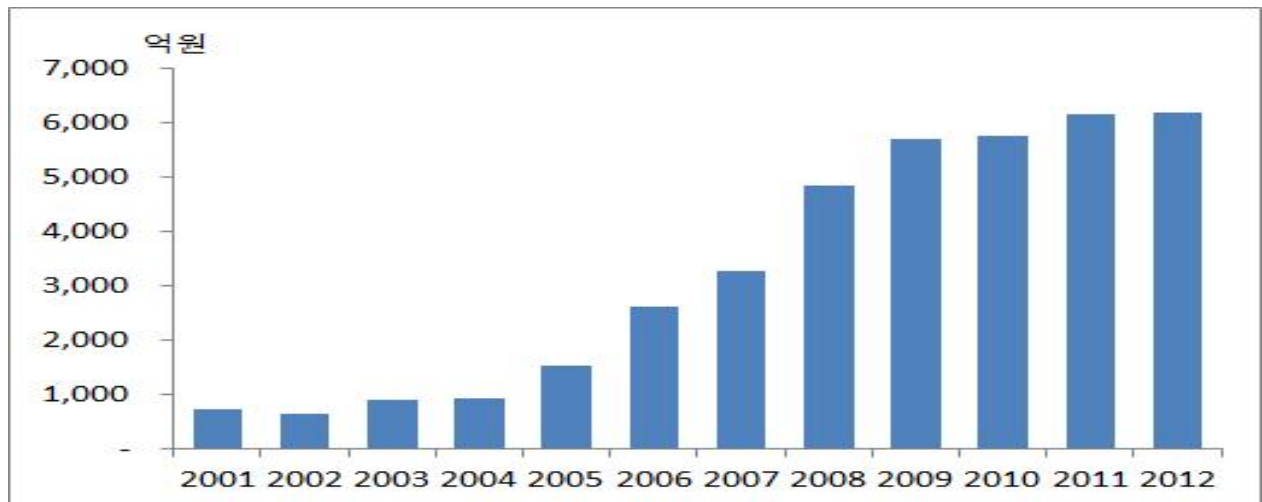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 육성 시책」, 2011. 9.

- 이러한 국토부의 중소 건설업 지원 예산은 국토부가 매년 지원하는 국토해양 R&D 투자의 1.5%에 불과
 - 국토부가 2011년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前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지원한 ‘국토해양 R&D 투자’는 6,161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정부는 국토해양 R&D 지원 중에서 12.0%에 해당하는 746억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업에 대한 실제 지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가 지원하는 R&D사업의 분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R&D 사업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R&D 사업에 지원된 것도 아님.

<그림 9> 국토부 R&D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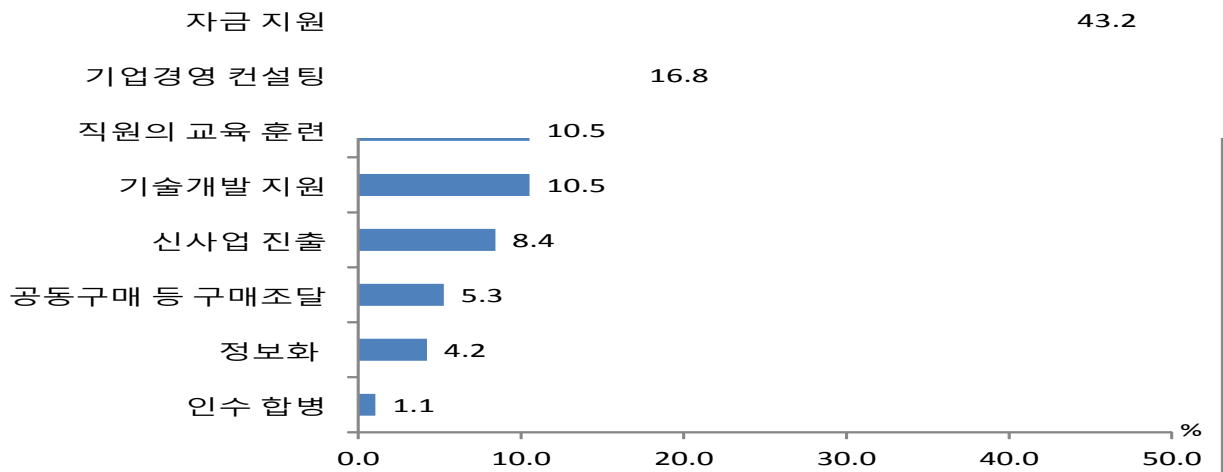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1년 실적 및 2012년 계획」, 2012.

□ 중소 건설업체의 지원 정책 니즈

- 최근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IT·GT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기술 개발·신사업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소 건설업체의 생존은 더욱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음.
- 중소 건설업체들은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지적
 -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및 직원의 교육 훈련 지원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임.
 - 기존 경영 지원 컨설팅 등의 경우, 중소 건설업의 특성이 거의 고려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호소
 - 노무·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조력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접근성도 떨어짐.

<그림 10> 중소 건설업체의 지원 희망 분야



자료 : 권오현 외 3인, 「중소 건설업체 경영 실태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p.85.

- 중소 건설업체의 공동 R&D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중소 건설업체의 특성에 맞는 R&D 지원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Inno-Biz 프로그램 등이 도움이 되지만 지원 규모가 작고, 건설 관련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중소기업이 별도의 전문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독립적으로 R&D 투자를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들이 외부 연구기관 혹은 대학 등과 연계하여 R&D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 하는 방안이 필요

5.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 중소 건설업 지원 활성화 필요성

- 정부가 핵심 국정 목표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건설산업은 고용 창출 등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크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건강·복지 등 미래 지향적 이슈와 밀접한 산업으로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대표적 산업으로서 중추적 역할이 요구됨.
 - 건설산업은 철강·유리·가전·가구 등 제조업까지 생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건설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막중하나, 중소 건설업체가 직면한 현실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에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노동 생산성 하락, 업체 수 과잉, 과도한 진입·퇴출의 반복 등에 의한 효율적 산업구조 달성 지연
 -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함께 금융·구매조달 능력 제고 등 경영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필요
-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설산업은 철근콘크리트·기계설비·정보통신 시스템 등 약 30개 공종이 복합적으로 접목하고 융합하는 것으로 고도 기술력이 요구됨.
 -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IT·GT 분야 등의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외 경쟁력 저하 초래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었으나 건설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산업간 균형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기본 지원방향

- 중소기업의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
- 중소기업 지원 가능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 건설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제도의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 경영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적극 모색
 - 중소기업이 취약한 자금, 구매 관리, 정보화 촉진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의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비중을 현재 GDP 대비 0.2%에서, 향후 건설업 비중인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 국토부가 지원하는 R&D 사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의 R&D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강구
- 경영 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 경영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경영 진단-컨설팅-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경영 지원
 - 정부는 지원 제도의 개발 및 정책 자금 확보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기관은 기술 자문, 경영 컨설팅 등 세부 지원 기능 수행
 - 정부-협회-연구기관 간 중소기업 협력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총괄 기구로 가칭 ‘중소건설업 지원센터’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건설업지원센터’는 ‘경영 개선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조사·분석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하고, 세무·회계·법률 관련 전문 서비스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지원
 - ‘중소건설업지원센터’는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는 방안 검토
- 미래 정예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고교 설립
 - 중소기업체는 우수 인재 확보가 매우 어려움.

-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젊고 우수한 인재 육성이 필요
- 전자·기계 등은 물론 어업·농축산·말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마이스터고교를 설립했으나 건설 분야는 아직 없음(2013년 현재 38개교).

□ 단기 추진 방안

- 정책 기조 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 조기 착수 필요
 - 새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여건 조성 필요
 - 정부의 2014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실효성 있는 중소 건설업 지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젠다 적기 발굴
 -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 수립 착수
- 중소 건설업체가 지원 가능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
 - 수요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가업 승계 지원,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안내 책자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운영, 지원 제도 설명회 등 건설협회 등 유관 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 중소 건설업체 지원 가능 프로그램의 1차 확대
 - 전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 건설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30% 이상 확대
 - 특히 중기청에서 시행중인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건설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발 기술 사업화·신성장 기반·투융자 복합 금융·경영 안정 등 정책 자금을 건설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중소 건설업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산업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제도 확대
 - 2014년도 정부의 중소 건설업 지원 예산에 반영 필요
 -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경영 지원 사업의 발굴·제시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경영 컨설팅 지원,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신사업 진출 지원 등 최소한 3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사업 경우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등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나, 제조업 위주의 컨설팅으로 건설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체는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기술, 노무, 회계 등 대응력도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전문 서비스 수요가 많음.
- 중소기업간 공동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사업 등의 활성화 필요
- 건설업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일본 등에서 활발히 시행 중)

<표 6> 조기 시행이 필요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사업 내용
경영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경영 진단 모델 개발 - 기술 지원 - 분쟁 조정 등 법률 지원 - 노무·회계 지원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체 연구 개발시 우대
신사업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업종 전환시, 진출 분야 시장 정보 제공 및 경영 자문 - 업종 전환시, 신사업 전환 자금 지원

-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수행이 필요
- 중소기업체들의 중소기업경영지원제도 활용 실태 및 수요 파악
- 중소기업체 지원 서비스 제공 역량 평가
-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도 발굴
- 해외 주요 국가 중소기업체 지원 제도 조사
- 지원 제도의 평가 및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 모색
-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도출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